

## 2024년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하늘의 모후, 묵주기도의 성모님을 기리며 다시 한 번 편지를 보냅니다. 묵주기도의 성모님을 향하여, “묵주기도의”라는 호칭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 동참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날에 우리는 성모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올리고, 동정이신 그분의 태중에서 실현된 육화의 신비를 바라보며 그분의 겸손과 흔들림없는 신앙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분의 “피앗”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곳은 평화, 정의, 형제애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가 전쟁들에 휩싸여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 한가운데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삶은 한결 같은 관상의 모범입니다. 묵주기도의 각 신비에서 우리는 그분의 아드님과 깊은 친교를 이루며, 큰 사랑과 이해로 그분 삶의 사건들을 묵상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그분의 마음은 하느님의 말씀이 거처하신 첫 성전이었고, 관상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랑도 더욱 커집니다.

도미니칸 선교사로서, 성모님의 모범은 우리에게 관상하고 관상한 것을 전하는 우리 수도회의 카리스마를 살도록 고무합니다. 성모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신비들에 대한 관상을 계속해서 심화하여, 분명하고 감동적으로 그 신비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관상은 우리를 하느님과의 친교에 이르게 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러한 일치에 이르기 위한 확실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성모송 하나하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형제 자매들의 목소리와 또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목소리와 결합시키라는 초대입니다. 각 신비는 예수님의 삶과 수난과 죽음과 영광을 묵상하는 기회이고, 또한 부활의 기쁨과 하느님 사랑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기회입니다.

평화의 선물을 깊이 갈망하게 되는 이 시기에, 묵주기도의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무수히 우리에게 보여 주셨듯이, 아드님께서 그 전구를 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아드님을 위로하셨듯이 전쟁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랑, 평화, 희망으로 가득한 그분의 마음을 반사하게 되기를 청합니다.

모두에게 기쁜 축일을 기원합니다.

기도 안에 일치되어,

총장 M<sup>re</sup>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